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산 및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in Pusan and Kyungnam Region Based on the Systems Approach

인제대학교 가족 · 소비자학과
조 교 수 김 효 정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Inje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Hyochung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resources, demand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based on the systems approach.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2 housewives living in Pusan and Kyungnam region by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ommunication frequency of husbands and wives w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financial satisfaction; (2) the perceived financial status such as comparison to reference groups and aspiration for financial status in the future had an influence on financial satisfaction, as well as the objective variables such as monthly living costs and monthly savings; and (3) financial satisfaction was also affected b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financial management program focusing on the ways to increase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to implement financial behavior effectively should be developed.

* 본 논문은 1998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Ⅰ. 서 론

가계는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공동목표로 하는 일차 집단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비해 가계가 보유하거나 접근가능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가족원의 예기치 못한 사건과 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관리자는 가족원의 요구를 실현시키고 가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계의 목표에 비추어 가족원의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원을 조직, 통제하는 가계재무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체제 이후 가장의 실직이나 감봉,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내의 효율적인 재무관리는 더욱 필요하다.

가계재무관리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접근법으로는 체계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가족자원관리의 각 변인간의 상호관계를 시간연속선상에서 제시해 줄 수 있고,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문제나 관리과정에 관련된 연구모형을 검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Heck, 1983), 재무관리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가계관리와 주관적 재정복지의 관계를 체계요소간의 관계로 보고 자체역동적으로 변화, 적응하는 체계론을 적용하는 경우, 각 가정의 바라는 목표와 산출된 재정복지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적응과 조정을 가능케 하고 끊임없는 가계관리의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다(김연정, 김순미, 199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관리를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가계자원과 요구를 투입요소로, 재무관리행동 단계를 변환과정으로, 그리고 재무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정만족도를 산출로 보아 주부들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과 가계의 복지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및 재무만족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재무관리과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현재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수행되었으나, 가계의 재정적 위기를 가계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가계의 재무관리는 가족자원관리모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Paolucci, Hall과 Axinn(1977), Gross, Crandall과 Knoll(1980), Deacon과 Firebaugh (1988) 등의 체계론을 통하여 발달되어 왔다. 체계란 일련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능하는 부분들의 통합된 집합이며, 가족은 투입, 변환과정, 산출로 구성된 관리적 체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체계이다(Deacon & Firebaugh, 1988).

체계적 접근법은 가족체계에 투입요소로 들어가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변환과정에 따라 가계의 복지도가 달라진다고 본다. 이는 동일한 여건의 요구와 자원을 가진 가계라 할지라도 변환과정의 차이로 인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를 달성하게 되는 다중결과성(multifinality)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계적 접근법은 일정한 자원과 요구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각기 처한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자원관리행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가계가 안정측면과 성장측면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재무관리행동의 분석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김순미, 1993).

1. 투입요소

체계적 접근법에서 투입은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목표와 사건에 대한 요구로 구성된다. 자원은 교육이나 지식과 같은 인적자원 및 주로 경제적 자원에 해당하는 물적자원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요구는 자원의 이용에 동기를 제공하는 동기부여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Titus 등(1989),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은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김연정과 김순미(1991)의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족원수는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많은 연구에서 가족원수는 재정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Mugenda, Hira & Fanslow, 1990; Titus et al., 1989; 고보선, 이영호, 1995). 또한 주부의 학력은 가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김연정, 김순미, 1991),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정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김숙이, 문숙재, 1988) 교육수준이 재무관리행동 및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은 재정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무관리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효과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ugenda et al., 1990; 고보선, 이영호, 1995; 김순미, 1993; 김연정, 김순미, 1991). 그러나 가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한 소득을 생활비, 저축 등의 여러 비목에 배분을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득 대신에 월가계 생활비, 월가계 저축액에 초점을 두어 재무관리행동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주부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업이 재무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순미, 1993)가 있는 반면,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민정, 1984)도 있다. 그리고 몇몇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직업에 따른 주관적 재정만족도는 전문직 종사자, 가정주부, 비전문직 순으로 낮게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확신과 가족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높아 경제상황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ira, 1987; 김연정, 김순미, 1991).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가정내에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과 생활의 목표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며, 가정생활에서의 적합한 역할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준다(임정빈 등, 1994)는 점에서 재무관리행동 및 재정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투입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김정훈(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만족도는 의사소통 유형과 관계가 있으며 부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으면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관리지식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Titus 등(1989)과 Mugenda 등(1990)에 의하면 금전관리자가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계획과 수행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만족도와의 관계는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Mugenda 등(1990)은 가계관리지식과 재정만족도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Titus 등(1989)에 따르면 재무관리지식과 재정만족도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는 소득, 부채, 저축 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지(Hira et al., 1989; Mugenda et al, 1990), 소득적정성의 인지(박미금, 1993), 과거 · 현재 · 미래 사이의 재정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지(Hira et al., 1989; 김연정, 김순미, 1991), 상대적 비교감(박미금, 1993; 김연정, 김순미, 1991) 등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는 재정만족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Hira et al., 1989; Mugenda et al., 1990; 김정숙, 1996), 예를 들어 김연정, 김순미(1991), 이종혜(1993), 고보선, 이영호 등(1995)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전망인지가 가계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ra 등(1989)에 의하면 재정만족은 자산의 절대수준보다는 가계의 재정상황이 기대하거나 희망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를 준거집단 비교감, 재정상태 향상감, 재정상태 기대감, 재정상태 열망도, 한국경제상황 향상감, 한국경제상황 기대감 등 6개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각각 재무관리행동 및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2. 변환과정

변환과정인 재무관리는 투입요소를 받아들여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Deacon과 Firebaugh (1988)는 투입과 산출만 연구하고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큰 오류가 될 것임을 제시함으로써 변환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Nickell 등(1976)에 의하면 재무관리는 첫째,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정계획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둘째, 계획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셋째, 지출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고, 넷째,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Titus 등(1989)에 의하면 예산수립, 가계부기록, 신용사용, 저축, 위기관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재무관리행동의 수행여부는 재정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연령, 소득, 교육수준, 재무관리지식 등이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Titus et al., 1989; 고보선 등, 1997)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경제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임이 밝혀졌다(Titus et al., 1989; 김순미, 1993).

3. 산출

자원과 요구를 투입하여 재무관리행동을 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그 성취정도는 만족감으로 나타난다. 재정만족도는 재정목표나 재정기대의 달성정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을 뜻하며 연구자에 따라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 등으로 측정,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산, 교육수준, 연령, 소득, 재무관리지식 등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재무관리행동도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ugenda et al., 1990; Sumarwan & Hira, 1993; Titus et al., 1989; 김순미, 1993: 김혜정, 1995). 또한 임정빈 등(1998)에 의하면 투입변수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는 경우, 그리고 경제문제를 경험하지 않을수록 만족정도가 높았으며, 변환변수인 재무관리행동이 합리적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투입변수는 변환과정변수인 재무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투입변수, 그리고 변환과정변수인 재무관리행동은 산출변수인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재정만족도와 관련된 제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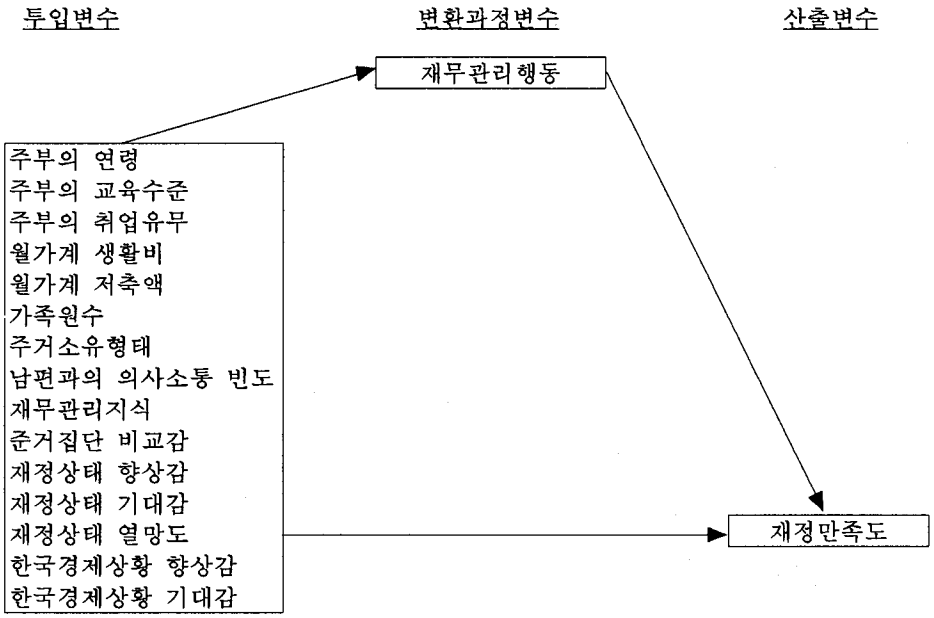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및 투입변수, 변환과정변수, 산출변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척도별 타당도는 전공자의 검사를 받았고, 해당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1) 투입변수

투입변수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월가계 생활비, 월가계 저축액, 가족원수, 주거소유형태,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재무관리지식 등의 자원변수와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인 준거집단 비교감, 재정상태 향상감, 재정상태 기대감, 재정상태 열망도, 한국경제상황 향상감, 한국경제상황 기대감 등의 요구변수가 포함되었다.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는 재정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주부가 남편과 의견교환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김지애(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모두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의견교환을 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의견교환을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는 12점부터 6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무관리지식 척도는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세금, 신용카드, 연금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으며, 맞는 답은 1점, 틀린 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는 0점부터 2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를 나타내는 준거집단 비교감, 재정상태 향상감, 재정상태 기대감, 재정상태 열망도, 한국경제상황 향상감, 한국경제상황 기대감 등의 6개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준거집단 비교감은 이웃이나 친지와 비교했을 때 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물었으며 '매우 부족'부터 '매우 적절'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재정상태 향상감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향상된 정도를 물었으며, 재정상태 기대감은 5년 후의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정도에 관해 물었다. 각각의 항목은 '매우 나빠졌음' 또는 '매우 나빠질 것임'부터 '매우 향상되었음' 또는 '매우 향상될 것임'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재정상태 열망도는 5년 후의 가계재정상태가 현재와 같을 경우에 만족하는 정도를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경제상황 향상감은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을 5년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향상된 정도를 물었고, 한국경제상황 기대감은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 5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를 질의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매우 나빠졌음' 또는 '매우 나빠질 것임'부터 '매우 향상되었음' 또는 '매우 향상될 것임'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변환과정변수

변환과정변수인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척도들은 Godwin과 Carroll(1986)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영수증관리, 가계부기록, 저축 및 소비습관 등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에 '아니다' 또는 '해

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을, 그리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점을 부여하였다. 점수는 0점부터 2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산출변수

산출변수는 현재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묻는 것으로 Hira 등(1989), Sumarwan과 Hira (1993), 이종혜(1993), 김지애(1995) 등의 연구를 기초로 가계의 저축수준, 전반적인 소비생활 수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충당할 능력 등에 대한 1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불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재정만족도 수준은 19점부터 95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상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0.91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스스로 기입토록 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5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부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1999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50명의 주부를 임의표집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233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212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신뢰도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부록〉 참조), 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회귀분석에서 주부의 교육수준(전문대졸 이상=0, 중졸 이하=1, 고졸=2), 주부의 취업유무(비취업=0, 취업=1), 주거소유형태(기타=0, 자가=1)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본수=212)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주부의 연령	20~29세	20(9.4)
	30~39세	98(46.2)
	40~49세	82(38.7)
	50세 이상	12(5.7)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35(16.5)
	고졸	134(63.2)
	전문대졸 이상	43(20.3)
주부의 취업유무	취업	94(44.3)
	비취업	118(55.7)
남편의 직업	전문직	15(7.1)
	공무원, 사회단체직	47(22.2)
	사무직	46(21.7)
	판매, 서비스직	56(26.4)
	생산직, 노무직	24(11.3)
	무직	9(4.2)
	기타	15(7.1)

〈표 1〉 계속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월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26(12.3)
	100만원~150만원 미만	75(35.4)
	150만원~200만원 미만	63(29.7)
	200만원~250만원 미만	23(10.8)
	250만원~300만원 미만	10(4.7)
	300만원~350만원 미만	4(1.9)
	350만원~400만원 미만	7(3.3)
	400만원 이상	4(1.9)
월가계 생활비	50만원 미만	10(4.7)
	50만원~100만원 미만	64(30.2)
	100만원~150만원 미만	81(38.2)
	150만원~200만원 미만	27(12.7)
	200만원~250만원 미만	23(10.8)
	250만원~300만원 미만	2(1.0)
	300만원 이상	5(2.4)
월가계 저축액	없음	24(11.3)
	1~20만원 미만	19(9.0)
	20만원~50만원 미만	63(29.7)
	50만원~100만원 미만	73(34.5)
	100만원~150만원 미만	24(11.3)
	150만원 이상	9(4.2)
가족원수	3명	14(6.6)
	4명	196(92.5)
	7명	2(0.9)
주거소유형태	자가	125(59.0)
	기타	87(41.0)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15.000	60.000	45.420	7.531
재무관리 지식	3.000	17.000	10.175	2.875
준거집단 비교감	1.000	5.000	2.443	.919
재정상태 향상감	1.000	5.000	2.703	1.251
재정상태 기대감	1.000	5.000	3.807	.823
재정상태 열망도	1.000	5.000	1.929	1.021
한국경제상황 향상감	1.000	5.000	1.665	.077
한국경제상황 기대감	1.000	5.000	3.722	.787
재무관리행동	2.000	20.000	11.736	3.749
재정만족도	19.000	89.000	55.528	10.411

2.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중회귀분석에서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월가계 생활비, 월가계 저축액, 가족원수, 주거소유형태,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재무관리지식, 준거집단 비교감, 재정상태 향상감, 재정상태 기대감, 재정상태 열망도, 한국경제상황 향상감, 한국경제상황 기대감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재정만족도에 관한 중회귀분석에 있어서는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위해 포함된 독립변수들과 함께 재무관리행동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과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부가 남편과 재정문제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 재무관리행동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부의 연령과 가계재무 관리행동간의 부적인 관계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용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정만족도에는 주부의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준거집단 비교감, 재무관리행동, 월가계 저축액, 재정상태 열망도, 월가계 생활비 순으로 영향력

〈표 2〉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중회귀분석

종속변수 / 독립변수	재무관리행동		재정만족도	
	b	β	b	β
주부의 연령	-.108	-.202*	.038	.026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6	-.018	-2.586	-.092
고졸	-.114	-.015	-.888	-.041
주부의 취업유무	-.805	-.108	.020	9.354E-04
월가계 생활비	-6.683E-07	-.108	2.493E-06	.126*
월가계 저축액	9.763E-07	.100	4.963E-06	.181**
가족원수	.403	.042	-1.171	-.044
주거소유형태	-.777	-.103	.947	.045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098	.199**	.465	.336***
재무관리지식	.026	.020	.093	.026
준거집단 비교감	.349	.086	2.774	.245***
재정상태 향상감	.159	.054	.937	.113
재정상태 기대감	-.244	-.054	.246	.019
재정상태 열망도	.288	.079	1.791	.176**
한국경제상황 향상감	-.288	-.076	.455	.043
한국경제상황 기대감	-.009	-.002	.081	.006
재무관리행동	--	--	.577	.206***
상수	18.461		13.251	
표준화된 R^2	.113		.541	
F	2.678***		15.654***	

* $p < .05$ ** $p < .01$ *** $p < .001$

이 있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4%이었다. 즉 아내가 남편과 재정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많이 하거나,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지하거나, 재무관리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월가계 저축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미래의 가계재정상태가 현재와 같을 경우 보다 큰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거나, 월가계 생활비가 많을수록 재정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계 저축액이 많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계의 저축액이 많을수록 미래에 보다 여유롭게 가계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월가계 생활비가 많을수록 가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보다 충분히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준거집단과의 비교감과 재정상태 열망도는 재정상황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로써 생활비나 저축액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못지 않게 재정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아내의 남편과의 의사소통 참여빈도는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재무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의견교환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 재정문제에 관한 갈등부분을 해소하여 그 결과 재무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가족목표에 도달할 기회를 증가시켜 재정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인과적 관계

앞서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중회귀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무의미한 변수를 배제한 후 새로운 모형으로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리고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표 4〉에 제시하였고, 〈그림 2〉는 이에 근거한 경로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주부의 연령은 재정만족도에 간접효과(-.051)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내의 연령이 적을수록 아내의 재무관리행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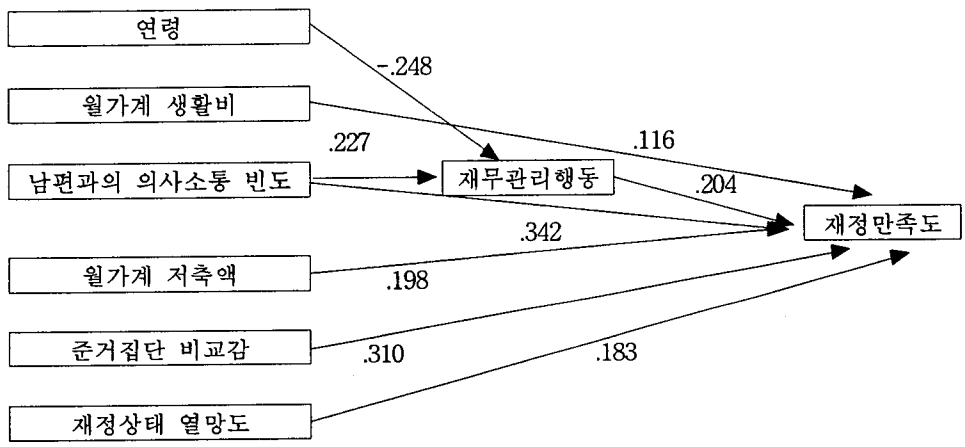
〈표 3〉 경로모형을 위한 최종 회귀분석표

종속변수 / 독립변수	재무관리행동		재정만족도	
	b	β	b	β
주부의 연령	-.132	-.248***		
월가계 생활비			2.022E-06	.116*
월가계 저축액			5.439E-06	.198***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112	.227***	.473	.342***
준거집단 비교감			3.506	.310***
재정상태 열망도			1.862	.183***
재무관리행동			.571	.204***
상수	19.344		10.644	
표준화된 R^2	.125		.549	
F	13.301***		43.776***	

* $p < .05$ *** $p < .001$

〈표 4〉 재정만족도에 대한 총 경로효과

독립변수	인과효과		총인과 효과	비인과 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부의 연령		-.051	-.051	-.031	-.082
월가계 생활비	.116		.116	-.067	.049
월가계 저축액	.198		.198	.233	.431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342	.046	.388	.090	.478
준거집단 비교감	.310		.310	.132	.442
재정상태 열망도	.183		.183	.252	.435
재무관리행동	.204		.204	.185	.389



〈그림 2〉 재정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결과적으로 아내가 느끼는 경제적 복지감을 훨씬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월가계 생활비, 월가계 저축액, 준거집단 비교감, 재정상태 열망도는 매개변수인 재무관리행동과 관계없이 재정만족도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만족도에 대한 아내의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의 총효과는 정적 상관관계(r=.478)를 가지는데 직접효과(.342)와 재무관리행동을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046)를 갖는다. 즉 아내의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는 자신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재무관리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는 매우 약하며 인과적 효과는 대부분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매개변수인 재무관리행동의 재정만족도에 대한 총효과는 정적 상관관계(r=.389)를 보이며, 재무관리행동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적인 직접효과(.204)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재정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원과 요구의 투입, 관리행동으로 구성된 변환과정, 그리고 재정만족도를 산출로 설정했던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경로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인 〈그림 2〉와 비교해볼 때, 투입, 변환과정, 산출간에 일련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

가 재정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의 개념적인 틀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개선, 발전시키고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체계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212명의 주부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연령과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이었으며,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내의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준거집단 비교감, 재무관리행동, 월가계 저축액, 재정상태 열망도, 월가계 생활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본 경로모형에 있어서 아내의 연령은 재정만족도에 간접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월가계 생활비, 월가계 저축액, 준거집단 비교감, 재정상태 열망도는 매개변수인 재무관리행동과 관계없이 재정만족도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만족도에 대한 아내의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는 직접효과 및 재무관리행동을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재무관리행동은 재정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재정만족도의 경로모형에서 재무관리행동은 투입과 산출을 잇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주부의 가계 재무관리행동에 따라 주관적 재정복지의 수준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만족도에 대한 투입과 변환과정, 산출의 체계모델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내의 남편과의 재정관련 의사소통의 빈도는 아내의 재정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다양한 특성과 태도, 가치관을 가진 가족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가계문제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하는 등의 부부간의 의사소통 정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서로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의 경험 · 생각 ·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대응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부간에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관계와 책임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부부간의 유대는 자동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문화적인 영향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계획도 혼자서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은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가족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며,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원을 선택,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개선 및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만족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내의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그 중요성이 밝혀졌으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재정문제와 관련된 부부간의 의사소통 빈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준거집단 비교감과 재정상태 열망도는 주관적인 재정상태 인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가계관리자가 재정상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재정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IMF체제하에서

소득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계가 많은데 이는 가계소득의 불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심리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하여 재정만족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인인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내의 재무관리행동은 재정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오늘날 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가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인 재무관리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주부들에게 효율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노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지출, 저축관리, 부채관리, 투자 등에 대한 재무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에 재무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이들 정보의 제공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재정목표나 관리행동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재정만족도에 대한 체계론의 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보선, 이영호(1995). 가계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고보선, 이영호, 임정빈(1997).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45-58.

김민정(1984).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숙이, 문숙재(1988). 도시주부의 경제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1-24.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도 관계분석-체계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김연정, 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농가의 주관적 재무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김정훈(1995). 부부사이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연구, 6(2), 163-171.

김지애(1995). 주부의 성역할태도와 재정적불일치가 주관적 재무관리 및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1995).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16(3), 141-153.

임정빈, 지영숙, 문숙재, 이기영, 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Gross, H., Crandall, W., & Knoll,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Godwin, D., & Carroll, D. 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Heck, R. K.(1983). A preliminary test of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17-135.

Hira, T. K.(1987). Satisfaction with money manage-

ment: Practices among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Home Economics*, 79(2), 19-22.

Hira, T. K., Fanslow, A. M., & Titus, P. M.(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satisfaction in household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07-121.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s Issues*, 14, 343-360.

Paolucci, B., Hall, O., & Axinn, H.(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Wiley.

Sumarwan, U., & Hira, T. 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4.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

〈부록〉 제 변수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연령	1.000																		
2. 교육수준(중졸이하)	.421***	1.000																	
3. 교육수준(고졸)	-.044	--	1.000																
4. 교육수준(전문대졸이상)	-.263***	--	--	1.000															
5. 취업유무(취업)	-.022	.012	-.008	-.031	1.000														
6. 월가계 생활비	.406***	-.050	.084	.083	-.040	1.000													
7. 월가계 저축액	.023	-.093	.004	.173**	.100	.275***	1.000												
8. 가족원수	.177**	.043	.103	-.077	.013	.105	.024	1.000											
9. 주거소유형태(자가)	.363***	.009	.159	-.099	-.085	.383***	.096	.067	1.000										
10. 남편과의 의사소통 빈도	-.002	.039	-.059	.129	.001	.122	.171**	.049	.007	1.000									
11. 재무관리지식	-.155	-.271***	.098	.179**	-.064	.040	.050	.032	.091	-.017	1.000								
12. 준거집단 비교감	.018	.034	-.058	.090	.076	.224***	.398***	.007	.121	.137	.017	1.000							
13. 재정상태 향상감	-.102	.086	-.119	.025	.007	.054	.241***	.133	-.007	.153	.071	.435***	1.000						
14. 재정상태 기대감	-.141	-.004	-.001	.156	.129	-.083	.054	.051	-.115	.158	.148	.176**	.284***	1.000					
15. 재정상태 열망도	.137	.018	.110	.034	.043	.156	.310***	.161**	.149	.151	.003	.433***	.314***	-.028	1.000				
16. 한국경제상황 향상감	.036	.009	.009	.102	.044	.090	.220***	.042	.038	.038	.004	.219***	.225***	.061	.247***	1.000			
17. 한국경제상황 기대감	-.052	.044	.029	-.041	-.071	-.044	.003	-.159	-.015	.033	-.062	.113	.036	.304***	.029	.002	1.000		
18. 재무관리행동	-.248***	-.041	-.053	.051	-.078	-.139	.129	.012	-.173**	.227***	-.002	.142	.168**	.040	.118	-.023	.022	1.000	
19. 재정만족도	-.082	-.036	-.037	.151	.035	.049	.431***	.012	.013	.478***	.007	.442***	.421***	.162**	.435***	-.202**	.071	.389***	1.000

** $p < .01$ *** $p < .001$